

# 개인의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갈등 인식 및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The Impact of Individual's Social Capital on Social Conflict Awareness and Inclusiveness

권연화 Kwon Yeonhwa\*\*, 최열 Choi Yeol\*\*\*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individual's social capital on social conflict awareness and inclusiveness, resolve social conflicts and seek ways to increase social integration and inclus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ociety. Data from the 2018 Social Integration Survey were used for analysi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Women, young people, and unhealthy people were seriously aware of social conflicts, and men, young people, and healthy people were more inclusive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case of social capital, network and trust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recognizing social conflicts, and family-centered communication and trust in groups were important. Inclusiveness toward socially underprivileged members increased as they comply with the norms, are active in participating activities, have an open network, and more trust in the group. However, the lower the trust in agency and social fairness, the more inclusiveness increased.

Keywords: Social Capital, Inclusiveness, Social Conflict Awareness, Regression Model, Semi-Log Model

### I. 서론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사회경제적 계층 간의 이동기회도 줄어들면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극화를 판단하는 지표들 중에서 지니계수<sup>1)</sup>는 0.355, 소득 5분위 배율<sup>2)</sup>은 7.0배, 상대적 빈곤율<sup>3)</sup>은 17.4%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양극화

는 다소 심각한 수준이다(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8). 이러한 양극화 현상들은 단순히 사회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도시공간에서의 부유화(gentrification)와 분리화(segregation) 등 공간적인 차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김동한 2017). 양극화가 심화되면 사회계층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통합과 안정성이 저해되므로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등의 다

\* 이 논문은 2019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R1C1C1004080).

\*\*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전임연구원(제1저자) | Researcher, Urban Affairs Research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 | Primary Author | toadl21@daum.net

\*\*\*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교신저자) | Prof., Pusan National Univ. | Corresponding Author | yeolchoi@pusan.ac.kr

양한 학문분야에서 양극화, 사회통합, 포용성 등을 연구대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양극화 해소와 포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4)</sup>. 이렇듯 점차 사회안정성, 지속가능성, 사회통합, 포용성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의 규범, 사회조직 등 사회적 자본은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Putnam 2001), 갈등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상호존중, 신뢰를 높여 갈등을 감소시키는 역할뿐 아니라 이를 조정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Brown and Ashman 1996; 장용석, 정장훈, 조문석 2009). 더불어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며(Rogers, Aytur and Gardner 2012), 사회적 지속가능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Colantonio 2007; Dempsey 2008). 사회적 자본이 양호하면 집단 간의 포용성이 높아지고(Putnam 2000), 공평한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제도화하면 포용성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이재열 2006). 이렇듯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중요성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Van Deth 2008; 권연화, 최열 2018; 황선영, 어유경, 김순은 2019).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과 양극화로 인해 사회통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 사회통합과 포용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 자

본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Portes 1998; 황선영, 어유경, 김순은 2019).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의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약자구성원에 대한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II.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1. 사회갈등 및 포용성의 개념

사회갈등은 사회적 쟁점에 대해 최소 두 당사자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대립하여 긴장이 발생하는 상황으로(Baldock 1989; Deutsch, Coleman and Marus 2006; Raider, Coleman and Gerson 2006), 집단, 공동체, 계층 간의 충돌, 분쟁 등을 의미한다. 사회갈등은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며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차별, 비리, 부패 등과 같은 부조리를 겉으로 드러내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하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변화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하지만 지나친 사회갈등은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사회통합 및 국가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진혜경 2016; 배광빈, 류인권 2020).

1960~80년대 우리사회는 경제성장과 국토개발로

1)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지니계수 값이 0.35를 넘으면 불평등한 국가로 봄.

2) 소득 5분위배율은 상위 20%의 소득평균값을 하위 20%의 소득평균값으로 나눈 값으로 그 배율 값이 클수록 불평등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상대적 빈곤율은 가구별 인원을 고려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4)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예산투자를 위한 4대 핵심 분야로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저출산, 양극화 대응을 선정하였으며(기획재정부 2017. 03.28 보도자료),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하였음(2018.9.6. 2018 포용국가전략회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 잘살 수 있다고 보았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성장과 개발의 기회가 줄어들어 지역격차 및 경제적 양극화 등은 더욱 심화되었다(문정호 2017). 게다가 사회적 갈등은 지역갈등, 계층갈등, 세대갈등, 성별갈등, 이념갈등, 노사갈등, 공공갈등, 다문화갈등 등으로 훨씬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더욱 심각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조원빈 2016).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사회갈등을 이해하고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갈등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따라 갈등의 발생, 전개, 해결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이병량, 김서용, 전영평 2008) 본 연구에서는 사회갈등을 ‘인식’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다.

포용성(包容性, inclusiveness)은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이는 성질로 사람들을 특정한 경계(사회나 조직)에 속하게 한다는 의미이며 ‘배제(exclusion)<sup>5)</sup>’의 반대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Booth 1996; O'Reilly 2005; UN/DESA 2009; 조권중 2017; 조순옥, 홍준희 2019). 사회과학에서 ‘배제’는 특정 집단을 전제로 파악하는 것으로 연령, 성별, 인종, 출신국가, 문화, 언어 등과 같은 개인 및 집단의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부분적 또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참여에서 배제되는 과정과 그로 인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 받게 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UN/DESA 2009). 배제현상의 기저에는 사회적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는데, 사회의 불평등 구조는 특정한 사회집단의 참여기회, 접근성, 혜택 등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집단 간의 격차를 발생시키며 이 격차가 다시 특정집단에 대한 배제로 이어지는 순환적 과정에서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더욱 심화된다(조권중 2017). 반면, 포용성은 사회적 배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극복된 상태를 뜻하며(O'Reilly 2005; 조순옥, 홍준희 2019), 사회의 다양한 기회와 자원을 배제되지 않고 향유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Booth 1996; 조권중 2017). 또한 포용성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사회적 관용, 다양성 존중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서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포용성이 높아지면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동철, 박광표, 김대건 2020). 그러므로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사회의 불평등구조를 완화·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 포용성은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약자구성원을 자신의 이웃, 동료, 친구,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배제하지 않음)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 2. 사회적 자본의 개념

사회적 자본은 물리적인 형태가 존재하는 전통적인 자본과 달리 구체적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자본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한마디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을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 자원의 총합으로 보았고, Coleman(1990)은 사회적 자본이 하나의 실재(a single entity)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한 단면과 그 구조 안에 있는 개인의 특정 행동을 촉진하는 두 가지의 실재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Putnam(1993a)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으로 보았으며, Fukuyama(1995)는 사회적 자본을 사람들이 집단과 조직에서 공통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5) 배제(排除, exclusion)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한다는 의미.

집단 구성원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일련의 비공식적 규범 및 가치라고 하였다. 이렇듯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들의 관계 속에 내재하는 것으로 관계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으며(Lin 2001), 집단 내에서 유용한 개인의 자원으로 활용된다(김형빈 2005). 그러나 사회적 자본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공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관계에 포함되지 않은 구성원들 모두에게 그 이익이 공유되므로 거시적 차원에서는 공공재로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Putnam 1993b). 이를 통해서 사회적 자본이 집단(조직)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얻는 자원, 개인의 행동을 촉진하는 요소, 개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등 구성원 간의 관계 속에서 개인이 가지는 자원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는 연구자에 따라 네트워크, 규범, 신뢰, 참여, 호혜성, 집단협력, 개방성, 지식기반활동 등 유형과 범위가 매우 다양하지만<sup>6)</sup>, 본 연구에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신뢰(trust)는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이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Putnam 1993a) 개인에 대한 신뢰, 사회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등으로 구분하였다(Uslaner 1997; 심규신 2018; 곽윤경 2020). 사회규범(norms)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에 따라 행동하도록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책임의식을 높여 사회협력의 수준을 향상시킨다(Fukuyama 1995;

La Porta, Rafael, Andrei and Robert 1997; Putnam 2000; Lin 2001; Zak and Knack 2001). 사회규범은 행동기준이나 규칙을 지키려는 규범의식,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과 같은 태도적 측면과 법질서, 제도 등을 지키려는 제도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갑영, 김동훈 2019). 네트워크(network)는 사람 혹은 사회조직을 연결하는 다양한 관계의 묶음으로(권연화, 최열 2018) 공동체 및 사회구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박희봉, 이희창, 전지용 2008) 공식/비공식네트워크(공적/사적)로 구분할 수 있다(Portes 1998). 참여(participation)는 자발성과 적극성에 기초한 것으로 개인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사적 참여와 정치 참여와 같은 공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권연화, 최열 2018).

### 3. 관련 선행연구

사회적 자본(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은 조직 내 구성원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므로(Nahapiet and Ghoshal 1998),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어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요소라고 하였다(김태준 외 2010; 박상필 2000). 게다가 사회적 자본은 갈등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상호 존중 및 신뢰, 상호 의존을 증대시킴으로써 갈등을 줄이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Bromiley and Cummings 1995; 장용석, 정장훈, 조문석 2009). 사회적 자본이 사회 구성원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사회적 자본(신뢰, 관용, 소통, 참여 등)에 기초하여 갈등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하상근 2014). 사회적 자본 요소 중에서 특히 사

6) Bourdieu(1986)는 규범, 네트워크를, Coleman(1990)은 사회적 신뢰, 규범, 소통을, Putnam(1993a; 2000)은 신뢰, 네트워크, 시민참여를, Fukuyama(1995)는 신뢰, 규범을, Bullen and Onyx(2005)는 네트워크 참여, 상호주의, 신뢰, 사회규범을 주요 요소로 꼽았으며, 권태형, 박종화(2010)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집단협력, 개방성, 지식기반환경을, 유치선, 이수기(2015)는 참여와 네트워크, 신뢰와 규범, 상호호혜를, 권연화, 최열(2018)은 규범, 네트워크, 참여, 호혜성을 중심으로 다루었음.

회적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을 용이하게 하고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더욱 강화시켰다(Pruitt and Carnevale 1993; Allen 2001; 박상필 2000; 심규선 2018). 사회신뢰와 공적신뢰는 사회통합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타인에 대한 신뢰는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곽윤경 2020). Putnam(2000)은 미국사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교적 높은 사회적 자본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훨씬 안전하고, 생산적인 이웃관계를 유지하고, 탈세행위가 적고, 집단간의 포용성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재열(2006)은 타인에게 (비)공식 장벽을 치지 않고 공평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사회의 포괄성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협력수준을 높이고, 공동체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고 완화시키며, 사회구성원의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고, 포용성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갈등, 포용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약자 구성원에 대한 포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토대로 한다. 이를 통해서 사회·경제적 양극화 및 불평등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상황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 등)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 사회적 자본과 포용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III. 분석모형과 변수의 구성

#### 1. 분석모형

개인의 사회적 자본에 따른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약자구성원에 대한 포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런데 설문조사의 여러 항목 값을 더한 일부 변수들(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 포용성, 사회단체활동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reliability) 분석을 추가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며 종속변수가 연속형인 경우에 활용하는 것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선형관계에 있다고 가정하는 OLS선형모형은 <식 1>과 같이 표현한다(김충련 2008). 그러나 실제 데이터로 변수 간의 완전한 선형성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기본적인 선형모형 외에 Semi-log 모형(식 2)을 병행하여(최열, 손태민, 김성이 2000) 보다 적합한 모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Y_i = \beta_0 + \beta_1 x_{1i} + \beta_2 x_{2i} + \dots + \beta_{dt} d_{dti} + \varepsilon_i \quad \text{<식 1>}$$

$$\ln Y_i = \beta_0 + \beta_1 x_{1i} + \beta_2 x_{2i} + \dots + \beta_{dt} d_{dti} + \varepsilon_i \quad \text{<식 2>}$$

#### 2. 변수의 구성

본 연구는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개인의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과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사회통합실태조사기는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과

7)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우리사회의 통합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및 태도 등의 변화 추이 및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을 사회영역별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18년 자료의 조사대상은 국내거주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로, 총 8,000명임.

발전을 위해 개인의 주관적 웰빙과 권리부여, 사회참여, 정치참여, 사회적 소통, 신뢰, 거버넌스, 공정성, 관용성(사회적 포용) 등에 대해 매년 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조사이다. 연구를 위한 변수의 구성은 <Table 1>과 같으며 SAS 9.4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약자구성원에 대한 포용성” 두 가지로 정하였다.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은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요소(빈곤층과 중산층의 갈등, 보수집단과 진보집단의 갈등, 근로자와 고용주의 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개발과 환경보전의 갈등, 고령층과

Table 1\_ Variables Definition

Classification		Variables Definition		
Dependent Valuables (D.V.)	Conflict awareness(CON)	Recognition of various social conflicts(9-36)*		
	Inclusiveness(IN)	Inclusiveness of the socially underprivileged(6-30)**		
Inde- pendent Valuables (I.V.)	Individual Characteristic (IC)	Gender(GEN)	1: male, 0: female	
		Age(AGE)	1: 19-29 years old, 2: 30-39 years old, 3: 40-49 years old, 4: 50-59 years old, 5: 60 more than years old	
		Education level(EDU)	1: elementary school graduate, 2: middle graduate, 3: high school graduate 4: university graduate or higher	
		Marital Status(MAR)	Have a spouse, 1: has exist, 0: none	
		Health Condition (HEA)	1: very bad, 2: bad, 3: usually, 4: good, 5: very good	
	Household Characteristic (HC)	Household Income(INC)	1: Less than 0-2 million won, 2: Less than 2-4 million won, 3: Less than 4-6 million won, 4: 6 million won or more	
		Residential Location(LOC)	1: urban, 0: rural	
	Sociap Capital (SC)	Norms (NO)	Tax payment(TEX)	Importance of tax payment, 1: not at all important, 2: not important, 3: usually, 4: important, 5: very important
			Compliance with the rules(RUL)	Importance of Compliance with Laws and Rules: 1: not at all important, 2: not important, 3: usually, 4: important, 5: very important
		Social Participation (SP)	Social group activities(SOC)	Total of activities in political parties, trade union organizations, (business associations or occupational associations), religious groups, clubs, civic groups, community public gatherings, alumni associations (housing associations), volunteer organizations (donating organizations),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Public service experience(PUB)	Sum of experiences using public services such as public hearing (hearing), resident participation budget activity, resident self-government center service, licensing service, Internet civil petition issuance service, tax service, police service, and firefighting service
			Participation in the election(ELE)	Participated in voting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1: yes, 0:no
		Network (NT)	Communication between social groups(S_C)	Sum of communication between individual social groups such as family, co-workers, neighbors, and generations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G_C)	Total communication between the citizens and individual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central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s
Family contact(FAM)			Number of family members (or relatives) contacted each day on a weekday	
Contact outside the family(NEM)			Number of non-family members (or relatives) contacted on a weekday basis	

(continued)

Table 1\_ Variables Definition (continued)

Classification			Variables Definition
Independent Valuable (I.V.)	Sociap Capital (SC)	Trust (TR)	Collective trust(CO_T)
			Institutional trust(IN_T)
			Social fairness(FAR)
			The sum of confidence in each group, such as family, neighbors, friends or coworkers, strangers, foreigners, etc.
			Sum of trust in individual institutions such as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 National Assembly, courts, prosecutors, police, local governments, public corporations, military, trade union organizations, TV broadcasters, newspapers, educational institutions, medical institutions, large corporations, religious institutions, financial institutions, etc.
			The sum of fairness for individual agencies such as administrative agencies, the National Assembly, the court, the prosecution, the police, and the Central Election Commission

Note : Variables (CON, IN, SOC, PUB, S\_C, G\_C, CO\_T, IN\_T, FAR) consisting of the sum of the survey items are tested for reliability.

\* Awareness of social conflicts is a sum of the degree to which an individual feels serious about various forms of conflict in our society. (1: not too much at all, 2: not too much, 3: a little too much, 4: very severe) ① Conflict between the poor and the middle class. ② Conflicts between conservative and liberal groups. ③ Conflict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④ Conflict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provinces. ⑤ Conflict between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⑥ Conflict between the elderly and the young. ⑦ Conflict between men and women. ⑧ Conflict between different religions.

\*\* Inclusiveness is a sum of scores on whether socially disadvantaged members can be accepted as people with close relationships(unacceptable, 1 point), such as their neighbors(2 points), coworkers(3 points), close friends(4 points), and spouses(5 points). Socially disadvantaged members are ① Disabled person ② Children of families with deficits (grandchildren, single-parent families, etc.) ③ Foreign immigrants/workers, ④ Ex-convict, ⑤ Homosexual ⑥ North Korean defectors.

젊은층의 갈등, 남자와 여자의 갈등, 서로 다른 종교의 갈등, 내국인과 외국인의 갈등)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심각성의 정도(1: 전혀 심하지 않음, 2: 별로 심하지 않음, 3: 약간 심함, 4: 매우 심함)로 각각의 갈등 요소에 대한 점수의 합을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사회적 약자 구성원에 대한 포용성은 장애인, 결손 가정(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의 자녀,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전과자, 동성애자, 북한이탈주민(탈북자/세터민) 등의 사회적 약자구성원을 자신의 이웃(2점), 직장동료(3점), 절친한 친구(4점), 배우자(5점) 등 자신과 가까운 관계의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받아들일 수 없음, 1점)와 그 수준으로 살펴보았다. 각각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정도를 합산한 값을 사회적 약자구성원에 대한 포용성으로 설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포용성인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독립변수는 개인특성, 가구특성, 사회적 자본특성으로 구분하였다. 개인특성에는 성별(GEN), 연령(AGE), 학력(EDU), 혼인상태(MAR), 건강상태(HEA)를 포함하였으며, 가구특성에는 소득(INC)과 거주지역(LOC)을 포함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 변수는 규범, 사회참여, 네트워크, 신뢰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규범은 행동기준이나 규칙, 법질서를 지키려는 태도와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등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정갑영, 김동훈 2019) 세금 납부에 대한 인식(TAX), 법규칙 준수에 대한 인식(RUL)으로 정하였다. 사회참여는 적극적/비적극적, 공적/사적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회단체 활동(SOC),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참여(PUB)과 선거참여(ELE)를 포함하였다. 네트워크는 크게 공식/비공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식네트워크로 정부(중앙정부, 국회, 지방정부, 지방의회)와 국민 간의 소통(G\_C), 비공식 네트워크로 가족들과의 접촉빈도

(FAM) 가족, 가족 외 집단과의 접촉빈도(NEM), 사회 집단 간직장동료, 이웃 등의 소통(S\_C)을 이용하였다. 신뢰는 개인 및 사회와 정부에 대한 신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가족, 이웃, 친구, 직장동료, 외국인 등) 신뢰(CO\_T), 정부기관(중앙부처, 국회, 법원, 경찰, 군대 등)과 사회(노동조합, 방송사, 신문사, 대기업 등)에 대한 신뢰(IN\_T), 정부기관(행정기관, 국회,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공정성(FAR)을 포함하였다.

### 3. 변수의 기초통계량

사회적 자본이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약자 구성원에 대한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변수의 기초통계량은 <Table 2>(연속형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Table 3>(명목형 변수에 대한 빈도분석)과 같다. 전체 표본데이터는 총 8000개이고, 종속 변수인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CON)은 평균이 25.47(최댓값 36, 최솟값 9)로 사회적 갈등을 약간 심

**Table 2**\_Descriptive Statistics of Continuous Variables

Variables		N	mean	S.D.	min	max		
D.V.	CON	8000	25.47	4.375	9	36		
	IN	8000	15.64	3.941	6	30		
I.V.	NO	TEX	8000	6.10	0.999	1	7	
		RUL	8000	6.10	0.990	1	7	
	SP	SOC	8000	13.17	4.260	9	45	
		PUB	8000	1.52	1.466	0	10	
	NT	S_C	8000	10.94	2.047	4	16	
		G_C	8000	8.87	2.247	4	16	
		FAM	8000	2.31	0.855	1	5	
		NEM	8000	3.05	1.005	1	7	
	TR	CO_T	8000	12.78	1.949	5	20	
		IN_T	8000	39.98	7.824	17	68	
		FAR		8000	28.29	5.491	12	48

한 수준으로 느끼고 있었다. 사회적 약자 구성원에 대한 포용성(IN)의 평균은 15.64(최댓값 30, 최솟값 6)으로 사회적 약자 구성원을 이웃이나 직장동료로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 수준까지 포용하는 것은 아직 어려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립변수들을 살펴보면, 개인특성 중에서 성별(GEN)은 남성이 49.69%, 여성이 50.31%로 비슷하였고, 연령(AGE)은 50대가 25.2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60대 이상 순이었다. 학력(EDU)은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비율이 45.18%, 고졸이 44%였고, 중졸, 초졸

**Table 3**\_Descriptive Statistics of Nominal Variables

Valuables	Classification	Freq.	Ratio	
I.V.	GEN	male	3975	49.69
		female	4025	50.31
	AGE	19-29 years old	1356	16.95
		30-39 years old	1419	17.74
		40-49 years old	1751	21.89
		50-59 years old	2020	25.25
		60 more than years old	1454	18.18
	EDU	elementary school graduate	318	3.98
		middle graduate,	548	6.85
		high school graduate	3520	44.00
		university graduate or higher	3614	45.18
	MAR	has exist	5603	70.04
		none	2397	29.96
	HEA	very bad	50	0.63
bad		444	5.55	
usually		2010	25.13	
good		4072	50.9	
very good		1424	17.8	
HC	INC	Less than 0-2 million won,	924	11.55
		Less than 2-4 million won	2774	34.68
		Less than 4-6 million won	2732	34.15
		6 million won or more	1570	19.63
	LOC	urban	6506	81.33
rural	1494	18.68		
SC	ELE	yes	7215	90.19
		no	785	9.81

이하의 비율이 각각 6.85%, 3.98%로 낮은 편이었다. 혼인상태(MAR)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0.04%였다. 건강(HEA)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50.9%, 보통 25.13%, 매우 좋다가 17.8%로 응답자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가구특성 중 가구의 월평균소득(INC)은 200~400만 원 미만, 400~600만 원 미만이 각각 34.68%, 34.15%였으며, 600만 원 이상은 19.63%, 200만 원 미만은 11.55%였다. 거주지역(LOC)은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81.33%로 월등히 높았다.

사회적 자본 변수를 살펴보면 규범 변수인 세금 납부(TAX)와 법규칙 준수(RUL)는 둘 다 평균이 6.10이었는데 최댓값이 7인 것을 고려한다면 응답자들은 세금 납부와 법규칙 준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참여 변수인 사회단체활동(SOC)은 평균이 13.17(최솟값 6, 최댓값 45)로 사회단체활동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며, 공공서비스 경험(PUB)은 평균이 1.52(최솟값 0, 최댓값 10)로 대부분 1~2가지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험밖에 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선거참여(ELE) 변수를 통해 90.19%의 응답자가 선거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 변수인 사회집단 간 소통(S\_O)은 평균이 10.94(최솟값 4, 최댓값 16)이고,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G\_C)은 평균이 8.87(최솟값 4, 최댓값 16)로 사회집단 간 소통이 정부와 국민 간 소통에 비해 더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접촉(FAM)은 평균이 2.31(최솟값 1, 최댓값 5), 가족 외 접촉(NEM)은 평균이 3.05(최솟값 1, 최댓값 7)로 중간 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신뢰 변수인 집단신뢰(CO\_T)는 평균이 12.78(최솟값 5, 최댓값 20)로 중간정도였으나, 기관신뢰(IN\_T)와 사회공정성(FAR)은 중간보다 낮은 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각의 평균은 39.98(최솟값 17, 최댓값 68), 28.29(최솟값 12, 최댓값 48)였다.

#### IV. 사회적 자본과 포용성 관계 분석

##### 1. 사회적 자본과 사회갈등 인식과의 관계 분석

사회적 자본과 사회갈등 인식, 포용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설문항목의 합으로 구한 변수들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sup>8)</sup>. 신뢰도 분석은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 포용성, 사회단체활동, 공공기관 서비스 경험, 사회집단 간 소통, 정부기관과 국민의 소통, 개인 신뢰, 정부기관과 사회 신뢰, 사회공정성 변수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세부항목이 아닌 전체에 대한 크론바 알파(Cronbach Alpha) 값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크론바 알파계수는 개별항목의 내부일관성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다(Nunally 1978; Brown

Table 4 \_ Reliability Analysis

Valuables			Total Cronbach's $\alpha$	
D.V.	CON		0.849	
	IN		0.796	
I.V.	SC	NO	TEX	-
			RUL	-
		SP	SOC	0.621
			PUB	0.566
			ELE	-
		NT	S_C	0.725
	G_C		0.814	
	FAM		-	
	TR	NEM	-	
		CO_T	0.631	
		IN_T	0.923	
		FAR	0.884	

8) 개별 변수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Table 1(변수의 정의)에 설명되어 있음.

1983). 크론바 알파값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Nunally(1978)은 0.7 이상이면 신뢰할 만한 수준, 0.6 이상이면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보았으며, 최소 0.5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변수들의 크론바 알파값은 공공기관서비스 경험(PUB) 변수가 0.566으로 가장 작았고,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0.6 이상이므로 합당한 값을 대표변수로 활용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 요소가 사회적 갈등

등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OLS모형과 Semi-log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각각의  $R^2$ 는 0.092, 0.085였다. Semi-log 형태로 종속변수를 변형시켰음에도 모형의 설명력 향상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횡단면으로 설계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R^2$ 값이 지나치게 높으면 측정의 편향을 의심하게 한다는 점에서 본 분석의  $R^2$ 값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R^2$ 값에도 불구하고 주요 변수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Table 5\_ Regression Analysis on Social Conflicts Awareness According to Social Capital**

Variables	OLS					Semi-log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t Value	VIF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t Value	VIF		
Intercept	31.7570	0.0000 ***	0.670	47.41	0.00	3.4738	0.0000 ***	0.029	121.45	0.00		
IC	GEN	0.3007	-0.0201 *	0.096	-1.83	1.06	0.0125	-0.0216 *	0.004	-1.96	1.06	
	AGE	0.0528	-0.0304 *	0.054	-1.81	2.46	0.0016	-0.0206	0.002	-1.22	2.46	
	EDU	0.0107	0.0180	0.076	1.35	1.57	0.0002	0.0248 *	0.003	1.85	1.57	
	MAR	0.0307	-0.0219	0.155	-1.46	1.98	0.0016	-0.0205	0.007	-1.36	1.98	
	HEA	-0.5536	-0.0872 ***	0.062	-7.53	1.18	-0.0224	-0.0802 ***	0.003	-6.91	1.18	
HC	INC	-0.1970	0.0391 ***	0.055	3.36	1.19	-0.0095	0.0431 ***	0.002	3.69	1.19	
	LOC	-0.0043	-0.0430 ***	0.124	-3.91	1.06	0.0007	-0.0317 ***	0.005	-2.87	1.06	
SC	NO	TAX	0.2560	0.0687 ***	0.068	4.43	2.11	0.0108	0.0668 ***	0.003	4.30	2.11
		RUL	-0.0106	0.0120	0.068	0.78	2.09	0.0002	0.0083	0.003	0.54	2.09
	SP	SOC	0.1078	0.0104	0.012	0.89	1.20	0.0041	0.0050	0.001	0.42	1.20
		PUB	-0.0466	0.0103	0.034	0.90	1.15	-0.0017	0.0128	0.001	1.11	1.15
		ELE	-0.1410	-0.0376 ***	0.166	-3.34	1.12	-0.0061	-0.0358 ***	0.007	-3.16	1.12
	NT	S_C	-0.1758	-0.0922 ***	0.026	-7.63	1.28	-0.0080	-0.1041 ***	0.001	-8.59	1.28
		G_C	-0.0983	-0.0022	0.025	-0.18	1.42	-0.0028	0.0081	0.001	0.64	1.42
		FAM	0.1029	0.0500 ***	0.058	4.39	1.14	0.0060	0.0495 ***	0.002	4.33	1.14
		NEM	-0.2263	-0.0024	0.049	-0.21	1.13	-0.0090	0.0009	0.002	0.08	1.13
	TR	CO_T	-0.4671	0.0480 ***	0.027	4.06	1.23	-0.0183	0.0424 ***	0.001	3.58	1.23
		IN_T	0.1846	-0.0834 ***	0.008	-5.83	1.80	0.0087	-0.0697 ***	0.000	-4.85	1.80
		FAR	-0.4829	-0.1770 ***	0.011	-12.70	1.70	-0.0151	-0.1804 ***	0.000	-12.91	1.70
Number of data	8000	F Value	42.29			Number of data	8000	F Value	39.18			
R-Square <sup>1)</sup>	0.0915	Pr > F	<.0001			R-Square	0.0853	Pr > F	<.0001			

Note. \* : P<0.1, \*\* : P<0.05, \*\*\* : P<0.01.

9) Cohen(1988)은 사회과학적 내용을 다루는 회귀분석에서 내인성 잠재변수에 대한 결정계수(R<sup>2</sup>)의 크기가 0.26(큼), 0.13(중간), 0.02(작음)로 평가된다고 제안하였으므로, <Table 5>의 결정계수 0.0915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장용석, 정장훈, 조문석 2009). 그리고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VIF값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는데 분석모형의 적절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었다.

OLS모형과 Semi-log모형에서 계수의 부호도 일치하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변수는 11개였다. 연령(AGE)은 OLS모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학력(EDU)은 Semi-log모형에서만 유의미하였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이 조금 높은 OLS모형에 기초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특성 중에서 성별(GEN), 연령(AGE), 건강(HEA) 변수가 유의미하여 여성일수록, 젊을수록, 건강하지 않을수록 사회적 갈등(세대 간, 성별 간, 정치성향 간, 지역 간 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우리사회가 아직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젊은 세대들은 취업의 어려움, 높은 부동산 가격, 불안정한 미래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난관에 직면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충분히 건강하지 않아서 경험하게 되는 기본적인 생활 및 사회활동 등에 대한 제약들이 사회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특성의 경우 소득이 많을수록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는데 이는 선행연구(김문길 2017)와 동일한 결과이며, 거주지역의 경우 농촌지역에 거주할수록 사회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는데, 이는 공동체적 삶이 실천되고 더불어 사는 규범이 내면화되어 있는 농촌 거주자의 경우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 연구(장용석, 정장훈, 조문석 2009)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농촌인구의 감소와 심각한 고령화 등으로 인한 마을공동체의 쇠락과 부족한 다양성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박선미 2020).

사회적 자본 변수 중에서는 세금 납부(TAX), 가족 접촉(FAM), 집단신뢰(CO\_T)는 사회적 갈등 인식에

정(+ )의 영향을 주었다. 세금 납부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사회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가족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집단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폐쇄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갈등 지향적이라는 연구(장용석, 정장훈, 조문석 2009)와 유사한 결과로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 친구 등 동질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 생성되는 연대감과 일체감으로 신뢰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Fukuyama 1995). 선거참여(ELE), 사회집단 간 소통(S\_C), 기관신뢰(IN\_T), 사회공정성(FAR)은 사회적 갈등 인식에 부(-)의 영향을 주었다. 정치참여의 하나인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사회집단 간 소통이 적을수록 사회적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결과를 통해 정치참여와 집단 간 소통이 사회적 갈등 인식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사회적 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였는데 이는 사회에 대한 신뢰가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며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이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심규선 2018; 곽윤경 2020),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하다고 인식한다는 연구(이윤경 2020)의 결과와 부합한다.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수록 사회적 갈등 인식이 높아졌다. 이는 공정성이 사회적 갈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이진 2015), 정치, 경제 영역의 부패가 심할수록 사회적 갈등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김문길 2017), 국가기관의 활동이 불공정하다고 평가할수록 갈등지향적인 성향이 있다고 한 연구(장용석, 정장훈, 조문석 2009) 등과 유사한 결과이다. 사회공정성(FAR) 변수는 OLS모형과 Semi-log모형 모두에서 사회갈등 인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사회공정성이 한 단위 증가하면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이 OLS 모형에서는 0.48점 정도 감소하였고, Semi-log모형에서는 1.51% 줄어 0.38점 정도 감소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에 사회적 자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약자 구성원에 대한 포용 성과의 관계 분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 요소가 사회적 약자 구성원을 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OLS모형과 Semi-log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개별모형의  $R^2$ 는 각각 0.080, 0.081로 거의 비슷하였다. OLS모형과 Semi-log모형에서 계수의 부호가 일치하면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변수는 13개였으며, 입지(LOC)변수는 Semi-log모형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도시지역에 거주할 수록 사회적 약자 구성원에 대한 포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개인특성 중에서 성별(GEN), 연령(AGE), 건강 변수(HEA)가 유의미했으며, 가구특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남성일수록, 젊을수록 사회적

Table 6 \_ Regression Analysis on Inclusiveness According to Social Capital

Variables	OLS					Semi-log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t Value	VIF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t Value	VIF			
Intercept	10.0508	0.000 ***	0.607	16.56	0.00	2.3164	0.0000 ***	0.040	57.80	0.00			
IC	GEN	0.1914	0.0247 **	0.087	2.24	1.06	0.0133	0.0210 *	0.006	1.90	1.06		
	AGE	0.3487	-0.0935 ***	0.049	-5.55	2.46	0.0241	-0.0867 ***	0.003	-5.15	2.46		
	EDU	0.0453	0.0051	0.069	0.38	1.57	0.0026	0.0043	0.005	0.32	1.57		
	MAR	0.1001	0.0020	0.140	0.13	1.98	0.0056	0.0086	0.009	0.57	1.98		
	HEA	0.0801	0.0591 ***	0.056	5.08	1.18	0.0023	0.0748 ***	0.004	6.43	1.18		
HC	INC	-0.1532	0.0056	0.050	0.48	1.19	-0.0093	0.0077	0.003	0.66	1.19		
	LOC	0.0630	0.0150	0.112	1.36	1.06	0.0035	0.0200 *	0.007	1.81	1.06		
SC	NO	TAX	-0.4665	0.0485 ***	0.061	3.11	2.11	-0.0344	0.0512 ***	0.004	3.29	2.11	
		RUL	0.3439	0.0876 ***	0.062	5.65	2.09	0.0246	0.0917 ***	0.004	5.92	2.09	
	SP	SOC	0.2994	0.0490 ***	0.011	4.17	1.20	0.0186	0.0430 ***	0.001	3.66	1.20	
		PUB	-0.0059	0.0372 ***	0.031	3.23	1.15	-0.0002	0.0318 ***	0.002	2.76	1.15	
		ELE	-0.0572	0.0060	0.150	0.53	1.12	-0.0034	0.0026	0.010	0.23	1.12	
	NT	S_C	0.1947	-0.0796 ***	0.023	-6.55	1.28	0.0109	-0.0735 ***	0.002	-6.05	1.28	
		G_C	-0.2728	0.0359 ***	0.022	2.81	1.42	-0.0167	0.0306 **	0.001	2.39	1.42	
		FAM	0.0263	-0.1012 ***	0.053	-8.83	1.14	0.0015	-0.1129 ***	0.003	-9.85	1.14	
		NEM	0.0188	0.0877 ***	0.045	7.68	1.13	0.0053	0.0949 ***	0.003	8.31	1.13	
	TR	CO_T	0.2854	0.1481 ***	0.024	12.44	1.23	0.0239	0.1391 ***	0.002	11.70	1.23	
IN_T		0.0239	-0.0117	0.007	-0.81	1.80	0.0022	-0.0070	0.000	-0.49	1.80		
FAR		0.1521	-0.0796 ***	0.010	-5.68	1.70	0.0133	-0.0720 ***	0.001	-5.14	1.70		
Number of data	8000		F Value		36.71		Number of data	8000		F Value		37.16	
R-Square	0.0804		Pr > F		<.0001		R-Square	0.0813		Pr > F		<.0001	

Note. \* : P<0.1, \*\* : P<0.05, \*\*\* : P<0.01.

약자 구성원을 자신과 보다 가까운 관계(이웃→직장 동료→절친한 친구→배우자)의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포용성이 높음). 이는 사회의 변화, 교육효과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세계화와 국제화를 거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성의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구성원이 다양해지고 그들의 사회·경제적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본인이 속한 집단과 반대되는 주장이나 다양한 관점에 대해 덜 허용적이고, 사회갈등 지향적인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장용석, 정장훈, 조문석 2009). 그리고 건강할수록 사회적 약자 구성원에 대한 포용성이 높았다.

사회적 자본 변수 중에서 세금 납부(TAX), 법규칙 준수(RUL), 사회단체 활동(SOC), 공공서비스 경험(PUB),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G\_C), 가족 외 접촉(NEM), 집단신뢰(CO\_T), 사회집단 간 소통(S\_C), 가족접촉(FAM), 사회공정성(FAR) 변수가 사회적 약자 구성원에 대한 포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세금 납부, 법규칙 준수와 같은 규범적 요소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포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단체활동이 활발할수록, 공공서비스 경험이 많을수록 사회적 약자 구성원에 대한 포용성이 높아졌는데, 이는 다양한 단체활동에 참여할수록 통합지향적, 갈등회피적, 사회통합적 성향을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Hooghe and Stolle 2003; Han 2004).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할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이 높아졌다. 가족과의 접촉은 적을수록, 가족 외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사회집단 간 소통은 적을수록 포용성이 높아졌는데, 이는 개방적 연결망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사회통합 지향적이라는 연구(장용석, 정장훈, 조문석 2009)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집단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포용성도 함께 증가하였는데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통합 지향적이라고

하였다(Putnam 2000; 장용석, 정장훈, 조문석 2009). 집단신뢰(CO\_T) 변수는 OLS모형과 Semi-log모형 모두에서 사회적 약자 구성원에 대한 포용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집단신뢰가 한 단위 증가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이 OLS 모형에서는 0.29점 정도 높아졌으며, Semi-log모형에서는 2.39% 증가하여 0.37점 정도 높아졌다. 국가기관의 활동이 불공정하다고 평가할수록 갈등지향적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장용석, 정장훈, 조문석 2009)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은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참여 변수와 기관에 대한 신뢰 변수는 사회적 약자 구성원에 대한 포용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분석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요소들이 사회적 약자 구성원에 대한 포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V. 요약 및 결론

최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계층 간의 위화감이 증대되고, 사회적 통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국가차원에서도 양극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사회의 안정과 통합, 지속가능성, 포용성 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2018년)를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이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개인의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 포용성 증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개인 및 가구특성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은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소였다. 성별, 건강변수는 사회갈등 인식과 포용성에 상반된 영향을

미쳤는데, 여성일수록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했으며, 남성일수록 포용성이 높았다. 건강할수록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은 낮았으나, 포용성은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포용성도 높게 나타났다. 소득과 거주지역 변수는 사회갈등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 자본의 경우 세금, 사회집단 간 소통, 신뢰 변수(집단신뢰, 기관신뢰, 사회 공정성)는 사회갈등 인식과 포용성에 동일한 방향의 영향을 미쳤는데, 세금 납부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사회집단 간 소통이 원활할수록, 집단신뢰가 높을수록, 기관신뢰는 낮을수록,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사회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도 높게 나타났다. 선거참여는 사회갈등 인식에만 영향을 주었는데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수록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법규칙, 사회단체활동, 공공서비스 경험,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가족 외 접촉 변수는 포용성에만 영향을 주었다. 법규칙 준수를 중요하게 여길수록, 사회단체활동이 활발할수록, 공공서비스 경험이 많을수록,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이 원활할수록, 가족 외 접촉이 빈번할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성이 증가하였다.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에는 '네트워크'와 '신뢰'가 의미 있게 작용하였는데 가족중심의 소통, 집단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요인이었다. 사회적 약자 구성원에 대한 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 요소들이 더 많았으며, 규범을 준수하고, 참여활동에 적극적이며, 개방형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집단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기관 및 사회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낮을수록 포용성이 증가하였다.

결과에 기초하여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 구성원에 대한 포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포용성이 높아지면 갈등을 완

화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김동철, 박광표, 김대건 2020)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첫째, 우리사회에서 기본적인 규범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윤리의식, 도덕성 함양을 위한 가치교육이 교육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었다. 둘째, 개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사회단체활동, 공공서비스 참여 등)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오픈스페이스와 같은 활동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공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가족 외의 사회구성원과의 접촉, 개방형 네트워크 활동,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여 사회시스템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사회시스템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적 자본에 기초하여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 및 포용성을 실증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 및 포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계층별, 세대별 등 응답자의 특성을 보다 세분화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사회통합, 포용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곽윤경. 2020. 사회적 자본 실태 진단과 사회통합. 보건복지포럼 280권: 18-33.  
Kwak Yunkyung. 2020.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capital and its implication for social cohesion. *Health and Welfare Forum* 280: 18-33.
2. 권연화, 최열. 2018. 사회적 자본 및 도시특성이 기초자치단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토연구 96권: 21-36.  
Kwon YeonHwa and Choi Yeol. 2018. Analysis of influences

- of social capital and urban characteristics on competitiveness of local governments.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96: 21-36.
3. 권태형, 박종화. 2010. 사회적 자본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분석. 지방정부연구 14권, 3호: 97-116.  
Kwon Taehyoung and Park Jonghwa. 2010. The impact analysis of social capital on urban competitiveness. *Local Government Studies* 14, no.3: 97-116.
  4. 기획재정부. 2017. 내년도 예산, 민생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해 지출효율화로 4대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 3월 28일. 보도 자료.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7. Focused investment in the four key areas by improving expenditure efficiency for next year's budget, stabilization of people's livelihood, and future preparation. March 28, Press release.
  5. 김동철, 박광표, 김대건. 2020. 시민의 사회적 포용 가치 인식과 삶의 만족에 관한 dsurn : 관계신뢰와 사회적 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2권, 1호: 1-31.  
Kim Dongchul, Park Kwangpyo, Kim Deegeon. 2020.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citizens' social inclusiveness value and life satisfac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 trust and social conflict. *GRI REVIEW* 22, no.1: 1-31.
  6. 김동한. 2017. 도시양극화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635호.  
Kim Donghan. 2017. The reality of urban polariz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KRIHS POLICY BRIEF* no.635.
  7. 김문길. 2017. 사회갈등 및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한국보건복지포럼 245권: 37-49.  
Kim Mungil. 2017. Public recognition of social conflicts and social cohesion and its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Forum* 245: 37-49.
  8. 김충련. 2008. SAS 데이터 분석. 경기: 21세기사.  
Kim Chungryeon. 2008. *SAS data analysis*. Gyeonggi: 21cBOOK.
  9. 김태준 외. 2010. 사회적 자본 효과 분석 및 체계적 지원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m Taejun et al. 2010. *Analysis of social capital effect and systematic support plan.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Research Association Collaborative Research Series 10-25-03*.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0. 김형빈. 2005. 사회자본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부산발전포럼 95: 53-62.  
Kim Hyungbin. 2005. Community development through social capital, *Busan Development Forum* no.95: 53-62.
  11.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지속위 자료집 2005-17. 서울.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republic of Korea. 2005. *Public conflict and conflict impact analysis.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Archives* 2005-17. Seoul.
  12.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2018. 2018 포용국가전략회의 (2018.9.6.).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Presidential policy planning committee. 2018. 2018 Inclusive State Strategy Meeting(2018.9.6.). Presidential policy planning committee.
  13. 문정호. 2017. 포용도시 등장배경과 의미. 도시문제 55권, 582호: 22-25.  
Moon JeongHo. 2017. Background and meaning of the inclusive city. *Urban Issue* 55, no.582: 22-25.
  14. 박상필. 2000. 이익집단 갈등과 사회자본: 경실련의 한약분쟁 조정 사례연구. 한국행정학보 34권, 2호: 121-138.  
Park Sangpil. 2000. Interest group conflict and social capital : A case study on the mediation of the oriental medicine dispute in Gyongsilryeon. *Korean Association of Governmental Studies* 34, no.2: 121-138.
  15. 박선미. 2020.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인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경북 예천군 A마을 사례. 한국미속학, 72권: 113-147.  
Park Sunmi. 2020. The present conditions and tasks of senior citizen cultural policies for the vitalization of rural village communities -The case of a village in Yecheongun, Gyeongsangbukdo. *The Korean Folklore* no.75: 113-147.
  16. 박희봉, 이희창, 전지용. 2008. 가족사회자본이 집단가치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현대사회와 행정 18권, 3호: 51-76.  
Park Heebong, Lee Heechang and Chun Jiyoung. 2008. The influence of family social capital on group value and life satisfaction. *Moder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8, no.3: 51-76.
  17. 배광빈, 류인권. 2020. 사회적 자본과 소통이 사회갈등 해소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7권, 2호: 174-193.  
Bae Kwangbin and Ryu Inkwon. 2020.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communication on social conflict resolution,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27, no.2: 174-193.
  18. 심규선. 2018. 다문화 사회통합에서 상호접촉의 의미- 신뢰와 문화다양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Shin Kyusun. 2018. *Implications of intergroup contacts on social cohesion in multicultural society: with focus on trust and cultural diversity*. Ph.D. diss., University of Seoul.
19. 유지선, 이수기, 2015, 근린환경, 사회적 자본, 그리고 커뮤니티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인과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토계획 50권, 7호: 5-23.  
Yoo Chisun and Lee Sugie. 2015. Neighborhood environment, social capital, and social sustainability of community: explanatory study on causal relationships,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0, no.7: 5-23.
20. 이건. 2015. 사회갈등 해소 기제로서의 공정성 탐색.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권, 4호: 27-51.  
Lee Geon. 2015. Exploring Social Justice as a Mechanism of Reducing Social Conflict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s* 19. no.4: 27-51.
21. 이병량, 김서용, 전영평. 2008. 한국 사회갈등구조의 진단과 해석: 수준, 원인, 대안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보 22권, 4호: 49-72.  
Lee Byungryang, Kim Seoyoung, Chun Youngpyoung, 2008. The study of social conflict structure in Korea: Level, Cause and Alternative. *Korean Public Management Review* 22, no.4: 49-72.
22. 이윤경. 2020. 양극화 및 계층격차 인식에 대한 문화의 역할. 정부학연구 26권, 2호: 323-357.  
Lee Yoonkyung. 2020. The role of culture on perceptions of polarization and class gap.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26, no.2: 323-357.
23. 이재열. 2006.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5권: 23-49.  
Lee Jaeyoul. 2006. Community and social capital. *The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Symposium* no.5: 23-49.
24. 장용석, 정장훈, 조문석. 2009.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갈등: 사회적 자본의 다면적 속성에 대한 재조명. 조사연구 10권, 2호: 45-69.  
Jang Yongsuk, Jeong Janghoon and Cho Munseok. 2009. Social capital and social conflicts in Korea. *Asian Journal for Public Opinion Research* 10, no.2: 45-69.
25. 정갑영, 김동훈. 2019. 사회적 자본 지수의 계측. 한국경제포럼 12권, 1호: 1-26.  
Jeong Kap-Young and Kim Donghun. 2019. A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 index. *The Korean Economic forum* 12, no.1: 1-26.
26. 조관중. 2017. 포용도시 서울: 성과와 과제. 서울: 서울연구원  
Cho Kwongjung. 2017. *Inclusive city Seoul: Achievements and tasks*. Seoul: The Seoul Institute.
27. 조순옥, 홍준희. 2019.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의 사회적 포용 관점에서의 성과 탐색. 평생교육·HDR 연구 15권, 4호: 81-104.  
Jo Sunok and Hong Junhee. 2019. Exploring effects of the lifelong education voucher program for the vulnerable group on social inclusion. *Korea Lifelong Education & HRD Institute* 15, no.4: 81-104.
28. 조원빈. 2016. 정치사회제도에 대한 신뢰와 사회갈등. 정치정보연구 19권, 1호: 209-241.  
Cho Wonbin. 2016. Trust in institutions and social conflict.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19, no.1: 209-241.
29. 진혜경. 2016. 청소년의 사회갈등 인식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2권, 1호: 283-306.  
Jin Hyekyung. 2016. The influences of adolescents' perceptions of social conflict on life satisfaction : The moderating effects of community belongingnes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Kyungsoong University* 32, no.1: 283-306.
30. 최열, 손태민, 김성이. 2000. 님비(NIMBY)시설이 주변 주거 환경 자가에 미치는 영향 : 교도소 및 변전소 사례. 국토계획. 35권, 1호: 151-163.  
Choi Yeol, Son Taemin, Kim Sungyi. 2000. Effect of NYMBY facilities on residential property values: Prison & power transit station cases. *Journal of Korea Planners Association* 35, no.1: 151-163
31. 통계청. 2018. 2018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12월 20일, 보도자료.  
Statistics Korea. 2018. *2018 Household financial welfare survey result*. December 20. Press release.
32. 하상군. 2014. 공공갈등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방안연구: 밀양송전탑 건설의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1권, 2호: 79-103.  
Ha Sanggun. 2014. Measures of rational adjustment for public conflicts : Focusing on the issue of the transmission tower in Miryang.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21, no.2: 79-103.
33. 황선영, 어유경, 김순은. 2019. 사회통합 관점에서 본 사회적 배제가 인지적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세대간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3권, 2호: 31-61.

- Hwang Sunyoung, Eo Yugyeong and Kim Sooneun. 2019.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exclusion on cognitive social capital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hesion - The moderating effect of generation.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33, no.2: 31-61.
34. Allen, J. C. 2001.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The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within an interactional field. *Journal of Socio-Economics* 30: 119-120.
35. Baldock, H. 1989. *Power and conflict: Toward a general theory*. Newbury Park: Sage.
36. Booth, T. 1996. A perspective on inclusion from England.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26, no.1: 87-99.
37.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Y: Greenwood. 241-258.
38. Bromiley, P. and Cummings, L. L. 1995. Transaction costs in organizations with trust. *Research on Negotiation in Organizations*. 5: 219-247.
39. Brown, F. G. 1983. *Principles of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Testing*.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40. Brown, L. D. and Ashman, L. 1996. Participation, Social Capital, and Intersectoral Problem Solving: African and Asian Cased. *World Development* 24, no.9: 1467-1479.
41. Bullen, P. and Onyx, J. 2005. *Measuring Social Capital in Five Communities in NSW: A Practitioner's Guide*. Sydney : Management Alternatives Pty Ltd.
42.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Second edition)*.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43. Colantonio, A., 2007. *Social sustainability: An exploratory analysis of its definition, assessment methods, metrics and tools*. EIBURS Working Paper Series, 2007/01. Oxford: Oxford Brooks University, Oxford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International Land Markets Group.
44. Coleman, J.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45. Dempsey, N. 2008. Does quality of the built environment affect social cohesion? *Urban Design and Planning* 161, no.3: 105-114.
46. Deutsch. M. Coleman. P. T. and Marus. E. C. 2006. *The handbook of conflict resolution: Theory and practice(Second edi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47.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o. D10 301 c. 1/c/ 2, New York: Free press paperbacks.
48. Han, J. 2004. Social capital, post-materialism and institutional confidence in South Korea, 1981-2003. *Journal of Asian Sociology Development and Society* 33, no.2: 165-183.
49. Hooghe, M. and Stolle, D. 2003. *Generation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institu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Palgrave.
50. La Porta, Rafael, F. L., Andrei, S. and Robert, V. 1997 Trust in large organizations.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87, no.2: 333-338.
51. Lin, N. 2001. *Social Capita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52. Nahapiet, J. and Ghoshal, S. 1998.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 no.2: 242-265.
53. Nu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NY: McGraw-Hill.
54. O'Reilly, D.G. 2005. Social Inclusion: A philosophical Anthropology. *Politics* 25, no.2: 80-88.
55.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Origins and applic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56. Putnam, R. D. 1993a.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4, no.13: 35-42.
57. \_\_\_\_\_. 1993b.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58.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 Schuster paperbacks.
59. \_\_\_\_\_. 2001. Social capital, measurement and consequences. *Canadian Journal of Policy Research* 2, no.1: 41-51.
60. Pruitt, D. G. and Carnevale, P. J. 1993. *Negotiation in social conflict*. UK: Open University Press.
61. Raider, E. Coleman, S. and Gerson, J. 2006. *The Handbook of Conflict Resolution: Theory and Practice*, San Francisco: Jossey-Bass.
62. Rogers, S., Aytur, S., and Gardner, K. 2012. Measuring community sustainability: Exploring the intersection of the

- built environment & social capital with a participatory case study. *Journal of Environment Studies and Sciences* 2: 143-153.
63. UN/DESA. 2009. *Creation an inclusive society: Practical Strategies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64. Uslaner, E. M. 1997. *Faith, hope and charity, unpublished manuscript*. College Park: University of Maryland.
65. Van Deth, J. W. 2008. *Measuring social capital* In D. Castiglione, J. W. Van Deth, and G. Wolleb(eds.). *The handbook of social capit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50-76.
66. Zak, P. and Knack, S. 2001. Trust and Growth. *Economic Journal* 111, no.470: 295-321.

- 
- 논문 접수일: 2021. 6. 11.
  - 심사 시작일: 2021. 8. 12.
  - 심사 완료일: 2021. 9. 23.

---

## 요약

주제어: 사회적 자본, 포용성, 사회갈등 인식, 회귀모형, Semi-log 모형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 계층 간 위화감 증대, 사회갈등 심화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의 안정과 통합, 지속가능성, 포용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2018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여성일수록, 젊을수록, 건강하지 않을수록 사회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였으며, 남성일수록, 젊을수록, 건강할수록 사회적 약자 구성원에 대한 포용성이 높았다. 사회적 자본의 경우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에는 ‘네트워크’와 ‘신뢰’가 의미 있게 작용하였는데 가족중심의 소통, 집단에 대한 신

뢰가 중요하였다. 사회적 약자 구성원에 대한 포용성은 규범을 준수하고, 참여활동에 적극적이며, 개방형 네트워크를 가지고, 집단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증가하였으나, 기관 및 사회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낮을수록 포용성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에 기초하여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과 포용성을 살펴보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 및 포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에는 응답자의 특성을 보다 세분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포용성 확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